

임권택의 영화는 '만다라' 전후로 나뉜다

1919년 10월27일 '의리적 구토' 이후 한국영화 100년의 역사는 수많은 걸작을 선사해왔다. 대중의 감성을 어루만지며 감동과 웃음과 눈물을 안겨준 대표적 작품들이 여기 있다. 창간 11주년을 맞은 스포츠동아가 감독, 제작자, 평론가 등 100인의 영화 전문가에게 한국영화 100년, 최고의 작품을 꼽아 달라고 요청해 얻은 답변이기도 하다. 이를 시대순으로 소개한다.

승려 출신 김성동 작가 소설 극화 두 승려 통해 번뇌와 깨달음 표현 임권택 "죽어도 내가 찍고 싶었다"



영화 '만다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지낸 영화사 청어람의 최용배 대표는 "그 많은 작품에서 매년 새로움을 보여준 훌륭한 예술가"라고 임권택 감독을 가리켰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1981년작 '만다라'야말로 임 감독의 대표작이라 할 만하다.

영화 '만다라'는 승려 출신인 작가 김

성동의 소설을 극화한 작품이다. 젊은 스님 법운(안성기)과 세속의 때에 찌든 듯, 초탈한 듯한 스님 지산(전무송)의 이야기를 그렸다. 이들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진리에 이르는 길을 서로에게 끊임없이 묻는다. 영화는 끊임없이 물려오는 욕망과 번뇌를 딛고 깨달음을 얻으려는 두 승려의 동행을 통해 가장 치열

한 삶에 관해 이야기한다. 임권택 감독은 2010년 영화평론가 김영진(명지대 교수)과 나눈 인터뷰(한국영상자료원, '영화천국')에서 "원작을 읽으면서 죽어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이에요. 그게, 승려사회를 찍고 있는 있지만 계율 밖에서 살고 있고 계율 안에서 몸부림치는, 나 자신도 대

충 사는 것에서 벗어나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승려의 얘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 삶의 완성을 향해 가는 게 참 아름답구나,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찍었죠"라고 말했다.

그만한 열의로 영화를 완성한 임 감독은 이를 통해 마침내 '작가'의 칭호를 얻어가기 시작했다. '만다라'는 이전의 '임권택'과 이후의 '임권택'을 가름하는 중요한 작품으로 한국영화사에 기록되고 있다.

이는 1979년 '신궁'으로부터 시작된 정일성 촬영감독과 호흡의 힘이기도 하다. 정 감독은 지산과 법운의 동행을 카메라에 담아내며 서정적인 사계절의 풍광을 잡아냈다. 특히 두 승려가 진흙과 눈길의 경계인 가로수길을 걷는 장면은 "번뇌와 깨달음, 삶과 죽음, 윤회와 해탈의 경계를 상징"한다고 한국영상자료원은 설명하고 있다.

안성기는 영화의 주연으로서 그해 대중상 남우주연상을, 임권택 감독은 감독상을 수상하며 탁월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4

박해미-황민 협의이혼 합의 알려져



박해미 황민

배우 박해미와 황민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14일 뒤늦게 알려졌다. 두 사람은 10일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뮤지컬 프로듀서인 황민은 앞서 지난해 8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배우 등 동승자 2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1994년 결혼했다.

추자현-우효광 29일 정식 결혼식



추자현-우효광 부부

연기자 추자현·우효광 부부가 정식 결혼식을 올린다. 소속사 B H엔터테인먼트는 14일 "두 사람이 5월29일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두 사람은 결혼식에서 지난해 6월 태어난 아들의 돌잔치도 겸할 예정이다.

tvN '손흥민 다큐멘터리' 23일 방송



손흥민 다큐 tvN '손세이셔널'

축구 스타 손흥민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23일 방송

한다. tvN은 이날 밤 9시 다큐멘터리 '손세이셔널-그를 만든 시간'을 선보인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활약하기까지 손흥민의 성장 스토리를 담은 프로그램이다. 박지성과 티에리 앙리, 아버지 손웅정 씨 등 손흥민과 함께 해온 이들도 출연한다.

영화 '로켓맨' 태런 에저튼 23일 내한



태런 에저튼

영화 '로켓맨'의 주인공 엘튼 존을 연기한 태런 에저튼이 내한한다. 수입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는 14일 태런 에저튼이 23일 내한해 프로모션을 펼친다고 밝혔다. 영화 '킹스맨: 골든 서클'의 주연이기도 한 태런 에저튼은 '로켓맨'에서 엘튼 존의 이야기를 연기하며 그의 강한 개성을 드러낸다. 영화는 6월5일 개봉한다.



벌써 5년째 2차 투어 박신혜의 팬 퍼스트

일본 시작으로 태국·대만서 팬미팅

연기자 박신혜가 벌써 다섯 번째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연다.

박신혜는 11일 일본에서 '보이스 오브 엔젤'이라는 타이틀의 팬미팅을 열고 6월 태국 방콕과 7월 대만 타이베이로 이어간다. 한 두 나라를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박신혜의 행보는 '한류여신'으로서 독보적이다. 순간의 인기로 편승한 단발성이 아닌 거의 매년 팬들과 만나고 있다는 점에서 꾸준함이 돋보인다. 특히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두터운 팬층을 과시하는 남성 스타나 아이돌 그룹이 아남에도 충성도 높은 팬들과 6년 이상 꾸준히 교류하고 있는 저력이 드러난다. 연기뿐만 아니라 뛰어난 춤 솜씨와 노래 실력으로 팔방미인의 매력을 더하는 덕분이다.

박신혜는 2013년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시작했다. 앞서 출연한 '미남이시네요' '넌 내게 반했어' '이웃집 꽃미남' 등 드라마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필리핀, 일본 등 6개국을 돌았다.

두 번째 투어부터 진가가 나타났다. 박신혜는 2014년 방영한 '상속자들'이 국내를 넘어 아시아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모으면서 중국 5개 도시를 포함해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등으로 무대를 늘리며 2015년과 2017년에도 팬들과 만났다. 2016년과 2018년은 각각 '닥터스'와 영화 '집착',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촬영으로 일정 조율이 어려워 열지 못했다.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5년째 펼쳐는 팬미팅 투어여서 박신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구성을 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포승줄 묶인 승리 '묵묵부답'

성매매와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29)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2월26일 성매매 알선 의혹으로 내사 수사를 받아온 지 78일 만이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경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넥타이, 정장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느냐"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해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승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매매 알선 등 혐의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성매매, 식품위생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 7분경까지 약 2시간40분 동안 진행된 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정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다" "혐



승리가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포승줄에 묶인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의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는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같은 시간 승리의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전 대표인 유 모 씨(34)도 횡령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한 영

법원서 2시간40분간 영장실질심사 구속 여부 확정까지 유치장서 대기

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승리와 유 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승리와 유 씨는 심사를 마치고 서울 중앙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8일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받아들여 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와 유 씨는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일본인 사업가 A회장과 그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파티에 동원된 여성 대부분과 유 씨는 성매매 혐의 사실을 시인했지만, 승리는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2015년 국내에서 성매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두 사람은 클럽 버닝썬의 자금 2억 6000여만 원을 2016년 7월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이들은 유흥주점인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피의자이기도 하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이번엔 스크린...정성화의 위대한 도전

뮤지컬 영화 '영웅' 안중근 역 개그맨 출신서 명품배우 우뚝

개그맨으로 출발한 정성화가 드라마틱한 도전의 기록을 써가고 있다. 연기자로 전향하고, 다시 뮤지컬에 도전해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선 그가 이번엔 스크린을 무대 삼는다.

정성화가 윤제균 감독이 연출하는 뮤지컬 영화 '영웅'(제작 JK필름)의 주인공 안중근 역을 맡는다. 안중근 의사의 지거 100년을 기념해 2009년 초연한 동명 뮤지컬이 원작으로, 정성화는 초연 이후 1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공연을 이어온, 명실상부 '영웅의 얼굴'이기도 하다. 제작비 100억 원대인 영화는 1909년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일본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뮤지컬 영화 '영웅'에서 안중근 역을 맡은 정성화

마지막 1년을 담는다.

뮤지컬 '영웅' 전까지 정성화는 사실 개그맨 출신 연기자로서 친숙했다. 1994년 SBS 3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그는 1999년 SBS 드라마 '카이스트'로 정극 연기를 시작했다.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다. 정성화는 한동안 감초 역할을 주로 맡다 2004년 뮤지컬 '아이 러브 유'로 시작으로 무대에 올랐다.

정성화는 과거 몇 차례 인터뷰를 통해 "먹고 살기 묘연해 뮤지컬 배우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개그맨으로서 재능이 부족

하다는 사실을 절감한 뒤 모색한 자구책이 었지만, 시간이 흘러 값진 도전을 이어가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윤제균 감독은 '해운대'와 '국제시장'으로 연이어 1000만 관객에 성공한 '흥행술사'로 통한다. 2015년 뮤지컬 '영웅'을 보고 영화화를 결심한 그는 2017년 기획을 본격화했다. 지난해 우주 배경의 '귀환' 프로젝트로 선회했다 다시 '영웅'부터 연출기로 했다.

윤 감독은 10년간 사랑받은 뮤지컬을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상징하는 정성화를 뛰어넘을 배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 내부의 이견에도 캐스팅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JK필름 관계자는 14일 "뮤지컬 영화를 이끌 가장력을 갖춘 배우 후보도 극소수인 상황에서 원작의 진정성을 지닌 정성화가 최적이었다"고 밝혔다.

'영웅'은 이르면 9월 촬영을 시작해 중국과 일본, 러시아 로케를 진행한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